

일본 특허정보 제공 분야의 명문 기업인 파토리스 경영난으로 업계에 충격

일 본의 특허정보 제공 회사인 파토리스(Patolis)사가 지난 7월 17일, 민사 재생 절차의 실시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파토리스사는 1978년에 일본 최초로 (재)일본특허정보기구(JAPIO)가 서비스를 시작한 특허정보 온라인 검색 시스템 「PATOLIS」를 계승하여 지난 2002년에 설립된 것이다. 도쿄의 한 지식재산 정보 회사 대표는 「예전부터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은 전해 들었지만, 최장기간 지속되어 온 서비스인 만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했다. 지식재산 업계 관계자들은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설립 초기에는 일본 통상산업성(경제산업성의 전신) OB로 샤프의 부사장, JAPIO 이사장직을 거쳐 온 와다 유타카(和田裕)씨가 경영을 계속해 왔지만 수년 전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한 바 있다. 그 후 이 회사는 자본 감소를 실시하고 도시바 등의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 카네로 스미오(加根魯澄夫) 신임 사장이 경영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2008년에는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부채액이 많아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경영 지원처로 소프트뱅크 계열사 등이 거론되고 있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은 외자계 기업과 절충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출처 : www.business-i.net

인도, 2008 ~ 2009년 특허 건수 18,230건으로 증가

인 도 국회의 하원은 인도 특허청이 2008-2009년도에 18,230건의 신규 특허를 승인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통상산업부 장관(Minister of State for Commerce and Industry)인 Jyotiraditya Scindia는 하원의 서면 답변에서 “인도 특허청은 지난 3년간 다양한 특허 출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2008~09년 36,877건의 출원물 중 18,230건이 특허를 승인 받았다. 2007~2008년도 특허청은 35,218건의 출원을 받아 15,261건을 승인하였다.

특허 심사관의 증가와 기존 특허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정부 계획을 묻는 질문에 Scindia는 “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의 현대화와 강화를 실시하도록 승인하였다.”고 언급하며, 해당 계획에서 특허, 디자인 심사관의 확충, 특허청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실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인도 정부의 11차 5개년 계획의 두드러진 요소로는 기반시설 마련과 인력 확충, 전산화, 인식 제고 등이 있다.

자료출처 : www.business-standard.com

일본,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참여하는 신규 민간 조직 잇달아 설립

세 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일본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민간 지식재산 전략 지원 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허 사무소를 대상으로 솔루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코스모테크 특허정보 시스템은 지난 7월 21일, 도쿄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추진회」를 개최했다. 세무사, 기술사, 중소기업 진단사, 공인회계사 등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에 변리사를 포함하여 전문가 제휴조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족식에는 각 사업 단체 간부 등 250명이 참가했다.

코스모테크사의 경영 간부에 따르면 「전문가의 힘을 결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상황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례회 참가자나 전국의 공공지원기관 등에서 활용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인적 네트워크 측면에서 나아가 톨 측면에서도 충실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본기술사회는 이번엔 「지식재산 컨설팅 센터」를 설치하고 지식재산 전략, 기술 경영, 지적 자산 경영 등의 지원을 시작했다. 기계, 전기·전자, 화학, 금속, 환경, 정보, 식품, 의료·바이오 등 각 분야의 기술사들이 업종의 벽을 넘어 변리사, 세무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약 30명의 참가자가 있지만,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기술사회의 쿠보 야스히로(久保康弘) 이사는 「우선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명도를 높이고 싶다.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LLC(유한책임회사)나 NPO(민간 비영리 단체)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최근 새로운 조직들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이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싱가포르의 한 지식재산 변호사는 「중국 정부의 경우 저비용 생산이라는 장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노베이션과 창조성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했다. 지식재산 전략이 곧 특허 출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경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종합적인 관점과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의 상태를 진단받고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중소기업은 고문으로 계약하는 전문가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 경영상의 모든 상담을 한 번에 끝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종합적인 지식재산 전략을 구축하는 구조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노하우 개발 및 실천적 연구도 중요하고 상담료의 정수, 분배도 과제로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자료출처 : www.business-i.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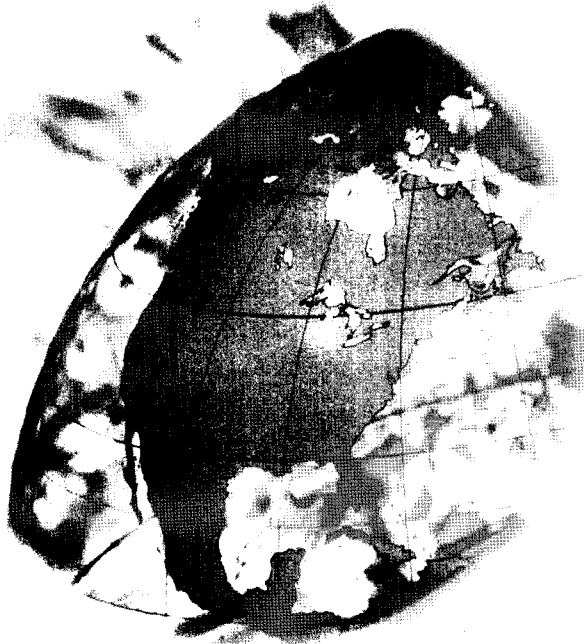
중국 판권보호센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 증가율 사상 최고

중 국 판권보호센터는 지난 7월 15일, 2009년 상반기에 중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각종 소프트웨어의 전체 등록건수는 29,934건에 달했는데 그 중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등록 건수가 전체의 96%를 차지하며 성장폭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6월 30일을 기준으로 중국이 2009년에 접수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신청 건수는 29,804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년 동기의 13,999건에 비해 112%가 증가한 결과이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는 28,748건으로 나타나, 동기 대비 100% 증가되었다.

소프트웨어 등록자의 소재지별 통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가 많았던 성·자치구·직할시는 상위권부터 순서대로 베이징시, 광둥성, 쑤저성, 상하이시, 장쑤성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 폭이 컸던 곳은 북경시, 광둥성, 쑤저성, 장쑤성, 푸젠성, 쓰촨성, 텐진시, 후베이성으로 성장 폭은 각각 28% 이상이었다. 그 중에 베이징시의 등록 건수는 중국 전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2위와 큰 격차를 보이며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쑤저성도 2008년 5위에서 2009년 3위로 크게 도약하였다. 한편, 가장 성장 폭이 큰 것은 텐진으로 처음 10위권에 진입하였다.

자료출처 : j.people.com.cn



의류 디자인 보호에 대한 업계 이견

저 작권 보호를 의류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디자인도용금지법(DPPA)으로 인하여 미국 패션업계의 불화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Michelle Obama가 선호하는 의류인 Zero + Maria Cornejo를 운영하는 Maria Cornejo는 DPPA에 의하여 자신의 의류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Michelle Obama의 취입식 의상을 제작한 Isabel Toledo는 DPPA가 패션 및 의류업계의 불화를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 상원에서 처리 중인 DPPA는 작품을 도용하는 기업들로부터 독립 디자이너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서 디자이너들은 등록비를 내고 디자인을 등록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패션에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적용하는 유럽과 일본과 동등한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의류 디자인 등록이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은 25년이다.

Smart & Biggar의 지식재산권 변호사인 Daniel S. Drapeau는 미국의 법령은 미국에 제품을 판매하는 캐나다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Drapeau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자의 사망 후 50년까지이며, 50개 이하의 디자인을 만든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 최대 규모의 두 패션 협회는 본 법안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를 보임으로써 업계가 편이 나뉘고 있다. 가입 초청을 통해서만 회원을 모집하는 미국 패션디자이너협회(Council of Fashion Designers)는 DPPA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미국 패션디자이너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위조품 시장 규모가 2000억 달러를 초과한다는 점과 협회 회원들의 작품이 위조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Cornejo의 경우에는 DPPA가 디자이너의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 예상했다.

일부 소매업체들을 대표하는 미국 의류 및 신발협회(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는 이에 반대하였다. 예컨대 Toledo는 디자이너의 대우가 좋아질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으며, 오히려 저작권 소송의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하이패션의 유행 독점을 야기하여 좋은 디자인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자료출처 : www.canada.com

베이징(北京) 국제판권센터 등이 건립한 「지식재산권 권익보호 공간」이 정식으로 가동

베이징(北京) 국제판권센터와 중화(中华)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위원회 공동으로 건립한 전국 「지식재산권 권익보호 공간」이 정식으로 가동되어 “창의보험상자”를 선보였다.

베이징 국제판권센터의 이사 리형(李衡)은 「전국 지식재산권 권익보호공간은 앞으로 전국 84곳의 법률사무소, 400여명 전문 권익보호 변호사 등을 바탕으로 판권 등기, 디지털판권 보호 기술, 권익보호행정 불편 접수 신고고발, 증거수집 조사, 권익보호 소송 등 법률자문과 판권권의 분야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건설에 적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중화법률협회 지식재산권위원회 리더청(李德成)은 “창의보험상자”에 대해 「창의보험상자를 간단히 말하면, 타인이 창의상품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최단시간, 최저자본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품임을 알리는 제도이다」라고 소개하고 등록과 사용절차에 대해 언급하였다.

“창의보험상자”는 저작권 침해 안전에 대한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의보험상자”는 인터넷 전자공증 방식으로 운영되며, 창의권리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 증거보존, 기업 상업기밀보호, 디지털저작권보호, 디지털작품 판권등기 등의 서비스를 담당할 것이다.

자료출처 : www.sipo.gov.cn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네트워크 내용·신분 식별코드 국제표준 발표

최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중국표준 음악작품 코드 (ISWC;International Standard Musical Work Code)」 등 4개 네트워크의 내용·신분 식별코드 국제표준을 비준하여 발표했다. 이 4개 항목의 표준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실시가 되면 중국의 영상, 음악, 문학작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표준코드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4개 표준은 「중국표준 시청각 작품호 제1부분; 시청각 작품표지 부 (ISAN-1)」, 「중국표준 시청각 작품호 제2부분; 판권부호부 (ISAN-2)」, 「중국표준 원문코드 (ISTC)」, 「중국표준 음악작품 코드 (ISWC)」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문화부 문화시장발전센터와 베이징 창위엔(创源) 코드연구원은 이미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성하였고 테스트를 거치는 등 각 항목의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는 “작품이 코드를 취득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원활하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하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모든 권리자들의 기술수단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코드는 문화, 영상전파, 뉴스출판 등 각기 다른 정부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일반 대중들 또한 신분식별, 정보관리, 정보검색, 정보교환과 관련된 기술 보증에 대한 부분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소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이 4개의 국가표준은 문화부 문화시장발전센터, 중국표준화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제출하여, 베이징 대학(北京大学), 칭화대학(清华大学),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국가도서관(国家图书馆), 베이징창위엔코드연구원(北京创源编码研究院), 중국판권협회(中国版权协会), 신기술·판권부호위원회(新技术与版权保护委员会) 등의 공동 참여를 통해 제정한 것이라고 한다.

자료출처 : www.cipnews.com.cn

USPTO 전자특허처리 진일보

미 국 특허청(USPTO)은 지난 7월 21일, e-Office Action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시범 프로젝트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특허 출원자는 우편이 아닌 전자메일로 통지를 받게 됐다. 전자 장비를 통해 자신의 출원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특허출원 정보 시스템인 Private PAIR에서 새로운 통신문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하게 되면 프로그램 참여자는 전자메일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무부의 지식재산권 차관보이자 USPTO의 임시 청장인 John Doll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원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문서 작성 비용과 우편 비용을 크게 줄였을 뿐만 아니라 통지 속도를 향상시켜 출원자들이 특허청의 조치에 대한 답변 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Office Action 프로그램의 대상과 참여

- 이 프로그램은 실용신안, 디자인, 국가 단계의 출원 재발급 등을 포함한 임시 출원(provisional application)과 정식 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을 모두 포함함. 국제 출원과 재심사, 조정 절차는 본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음
- e-Office Action 프로그램 참여는 선택 사항이며 모든 변리사나 기록 대리인, 개인 발명가들이 고객 번호에 연관된 특허 출원 시에 이용할 수 있음.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또한 어느 때나 e-Office Action 프로그램 이용을 중단하고 우편을 통해 통신을 수령할 수 있음

e-Office Action 프로그램 참여와 훈련, 기타 프로그램 정보는 www.uspto.gov/ea에서 얻을 수 있다. e-Office Action에 대한 질문과 제언은 Patent Electronic Business Center (EBC)의 고객센터 센터 866-217-9197 (무료)나 571-272-4100, ebc@uspto.gov로 연락

자료출처 : www.uspto.gov

일본 후마킬라, 아스제약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소송 제기

일 본의 살충제 제조회사인 후마킬라(Fumakilla Co., Ltd.)는 같은 업종의 아스제약이 2009년 3월에 발매한 휴대용 해충 퇴치기가 자사의 제품과 유사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킨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제조·판매의 금지를 요구하면서 도쿄지방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제기했다.

후마킬라에 의하면, 아스제약의 「밖에서 노매트 V130」는 살충 성분을 발산하는 장치에 벨트를 붙이고 손목시계와 같이 감는 형태로, 후마킬라의 「어디서나 베이프 NO.1 NEO」와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후마킬라의 제품은 2006년 2월에 발매되었다. 아스제약 홍보실 측에서는 「유사하다거나 법률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론하고 있다.

2008년 7월에는 아스제약이 살충 성분을 상하 방향으로 분출하는 장치에 대한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도쿄지방법원에 후마킬라를 제소한 바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분쟁 중이다. 그러나 후마킬라는 이번 제기에 대해 「아스제약이 제소한 것에 대한」 대항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료출처 : www.fumakilla.co.jp

광저우(广州)·홍콩 지식재산권보호합작 전문책임팀, 지식재산권 보호의식과 능력 향상에 관한 논의

광 저우·홍콩 지식재산권보호합작 전문책임팀의 제8차 회의가 광저우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정품승낙(正版正货承诺)” 활동을 벌이는 지역을 광동 8개 지역에서 11개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할 실무양성에 대해 결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조할 것에 동의하였다.

광동성 지식재산권국 국장 타오카이위안(陶凯元)은 “광동과 홍콩 두 지역의 지식재산권 합작은 기업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광동성에서 「지식재산권과 중소기업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광동, 홍콩, 마카오 지역의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 기업이 특허정보를 파악하고 이용하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홍콩 지식재산권서 사장 시에수팡(谢肃方)은 “광동과 홍콩이 계획한 새로운 합작 프로젝트는 2009년 말 「특허법 개정과 실시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예산을 논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지도부를 초청하여 상업계 종사자에 대해 새로 개정된 「특허법」에 대해 해설을 서비스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시킬 것이다. 또한 광저우에서 광저우·홍콩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 양성반을 꾸리고 기업이 중국 내 또는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다. 홍콩자산기업의 특허정보이용을 가속화 시킬 업그레이드 양성반을 광저우에서 설립하고, 두 개 지역 지식재산권법에 최신 과학기술을 공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자료출처 : www.ipr.gov.cn

칭다오(靑島) 지식산권국, 2009 중국 국제 소비 전자 박람회에서 지식재산 권에 관한 보호업무 전개

최 근 2009년 중국 국제 소비 전자 박람회가 칭다오에서 개최되어 전 세계 500곳의 유명한 전자 기업이 전시에 참여한다. 칭다오시 지식산권국은 시공상국, 시판권국, 칭다오세관, 라오산구(嶗山区) 지식산권국 등의 부서와 연합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팀을 꾸려 박람회에 투입했다. 이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전개하고 참여기업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전개하여 칭다오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수렴하였다.

박람회 기간에 지식재산권 보호업무팀은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자문과 불만접수 등의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전개한다. 50여 차례의 순회조사를 통해 만 건에 달하는 상품 조사, 특허표지 20여건 등록, 특허침해 분쟁 1건 처리, 특허행위 사칭 3건 개정명령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는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팀 위원회와 박람회 참여기업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중국의 기회를 누리다(全球共享中国机会)”를 주제로 전 세계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전자영역의 최신기술, 상품, 서비스 등 전 영역에 걸쳐 전시를 실시하였다. 박람회에는 1509개의 전시 부스가 설치되었고 박람회 면적은 40000평방미터, 부스수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박람회의 주요내용은 신기술, 특허상품 등이 주로 포함되었고 이들은 모두 처음으로 선보인 것으로 박람회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 높은 요구를 반영하였다.

자료출처 : www.sipo.gov.cn

미국 무역대표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무역 상대국의 감시 강화에 따라 무역 분쟁 가능성 높아져

미 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론 키크(Ron Kirk)는 지난 7월 16일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통상 정책의 기본방침을 표명했다. 키크 대표는 무역 상대국의 노동·안전 기준 등의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미국 통상법(스페셜 301조)’에 근거해 시정을 강요할 방침임을 나타냈다. 국내 고용 유지를 중시하는 오바마 정권의 방침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과의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키크 대표는 「(무역 상대국이 국제협정을 확실히) 실시하는 것이 통상 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상대국이 마련한 비관세 장벽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표명했다. 국무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제휴하여, 국내 기업이 불공정 경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대국에 시정을 요구한다고 한다.

통상 정책에서는 미국이 거액의 무역적자를 계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초점이다. 키크 대표는 광물 수출의 제한에 대해 미국이 지난 6월에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점을 언급하였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라고 강하게 언급하면서 중국 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자료출처 : www.nikkei.co.jp

제공 R&D 특허센터 홈페이지
(www.ipr-guide.org)